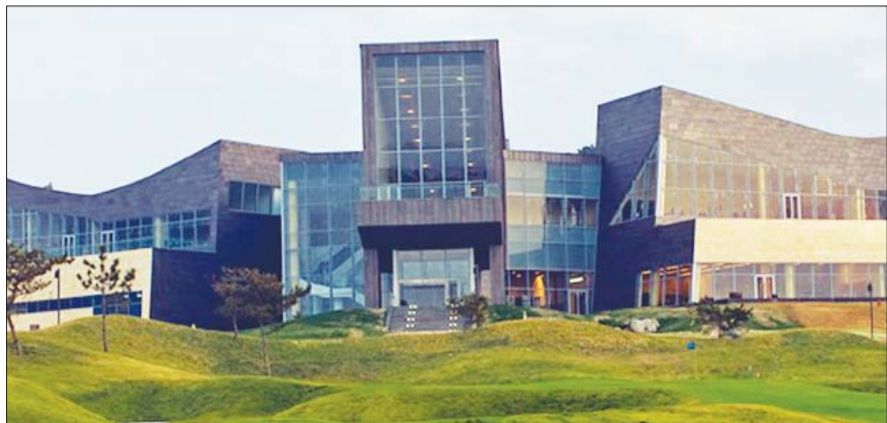


10년전 中에 관광 전진기지... 아시아나 비상에 득될까

호텔 품은 항공사, 이륙준비중

〈中〉아시아나항공

2008년 웨이하이포인트 호텔 오픈 6억위안 투자... 11년 넘게 운영 항공업 부진이 호텔업까지 영향



웨이하이포인트 호텔&골프 리조트

/금호리조트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업의 불황과 함께 호텔 등 숙박업에서도 난기류를 만났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존하는 국적 항공사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호텔을 함께 운영해왔다. 지난 2008년 골프사업을 주목적으로 '웨이하이포인트 호텔&골프 리조트'를 오픈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웨이하이포인트 호텔을 포함한 아시아나항공의 숙박업 부문은 좋지 못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항공업이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너지를 위해 뛰어든 호텔업마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

20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1년 넘게 웨이하이포인트 호텔&골프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웨이하이포인트

호텔&골프 리조트는 금호홀딩스에서 6억위안을 투자해 2008년 8월 30일에 오픈한 현대 리조트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호텔 이외에 또 다른 숙박업으로서 2006년 9월 30일을 분할기일로 휴양콘도미니엄 및 레저시설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금호리조트'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랜 운영 기간에도 불구하고 두 숙박업 모두 최근 마이너스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웨이하이포인트 호텔의 지난해 매출액은 ▲1분기 6억6811만7000원 ▲2분기 45억5639

만3000원 ▲3분기 61억9579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분기순손익은 ▲1분기 -3억5800만9000원 ▲2분기 -29억3406만5000원 ▲3분기 -7억3973만2000원을 기록하며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호리조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금호리조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1분기 143억7592만4000원 ▲2분기 677억7321만원 ▲3분기 592억3467만1000원으로 2분기 대비 3분기에 소폭 감소했다. 또한 분기순손익은 ▲1분기 -40억7521만1000원 ▲2분기 40억4275만9000원 ▲3분기 -256억1512만4000원

으로 2분기에 회복하는 듯 했으나 3분기에 대폭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부터 불황을 겪으며 항공운송 부문도 녹록치 못하다는 데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주력 사업인 항공 부문에서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하다 결국 지난해 4월 매각까지 결정됐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이 2조5000억원 가량 자금을 투입하며 지난해 4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288%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업황 부진으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항공운송 부문은 지난해 3분기 -2039억22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항공과 호텔업의 동시 경영이 아닌 아시아나항공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항공과 호텔은 상호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여행과 연계될 수 있어 보완성이 있는 것이다. 관련사업 다각화라고 할 수 있다"며 "관련 다각화를 하는 경우,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실적이 잘 안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시아나나 리조트나 호텔 사업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영 거버넌스나 역량이라든지 그런 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호텔사업 적자의 원인은 아시아나항공 내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SW·AI 인재육성 나선 정부, 1633억 투입

AI 포함 심화교육 올해부터 실시

정부가 올해 1633억원을 투자해 인공 지능(AI) 등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혁신 SW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지역 SW 교육도 확대하는 등 SW·AI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초·중·고 교육은 SW 기초교육을 넘어 AI를 포함한 심화교육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 인재 양성·저변 확충 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1월부터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SW 인재 양성을 위한 올해 총 예산은 작년 대비 23% 증가(384억원)한 것이다.

이를 통해 초·중·고·대학 등 교육과

정을 통해 약 14만명을 교육하고,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해커톤, 온라인 SW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초·중·고 교육은 AI 데이터 특화교육을 제공하는 'AI 교육 시범학교'를 전국 150개교에서 운영한다.

AI 등이 포함된 SW 심화과목 개선을 위해 초·중 교과서 2종 및 고교 교과서 4종을 개발하고, SW·AI교육 역량을 갖춘 핵심교원 2500명 양성을 위한 AI 수업설계, 교육과정 분석 등 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800억원 규모로 SW 중심대학 40개교를 지원해 SW 전공 과정과 융합교육을 통한 SW 전문·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90년대생 직원, 100점 만점에 '67점'

잡코리아·알바몬 설문조사

다른 세대보다 솔직하고 적극적

최근 90년대생 직원들의 기업 입사가 늘면서 이들 세대 직원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0년대생 직원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은 이들 세대 직원에 대해 100점 만점에 67점을 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90년대생 직원과 일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 4904명을 대상으로 '90년대생 직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100점 만점 기준에 평균 67점을 줬다.

90년대생 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70년대생 직원이 평균 64점을 줬 가장 낮았고, 80년대생 65점, 2000년대생 74점 순이었다. 같은 90년대생 직원의 같은 세대 동료 만족도가 77점으로 가장 높았다.

설문에서 '90년대생 직원들이 다른 세대 직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복수응답) 물었더니 '솔직하고 적극적인 의사 표현'(40.8%)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회사보다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30.9%), '모바일과 SNS로 소통을 더 선호함'(23.8%), '위라벨 중시'(22.6%), '자신을 위한 투자에 아낌이 없음'(19.2%)이 상위 5위권에 들었다.

/한용수 기자

조선, 수주 보릿고개 넘었지만... 일감부족 '허덕'

대우조선 시간외 근로시간 단축 삼성중 직원 상시 희망퇴직 실시 현대중 인력 효율화 방안 고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3사가 수주 보릿고개를 넘었지만 과거 수주절벽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최근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 감축과 잔업 축소 등 고정부 절감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업 고용은 2015년말 18만8000명에서 지난 2018년 8월 10만5000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지난해 11월엔 11만1000명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실적 개선을 위해 자구 노력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희망퇴직에 이어 시간외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진행한다. 2016년 이후 4년 만의 희망퇴직이다. 대상은 정년이 10년 미만 남은 사무 생산직, 1969년 이전 출생자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았으며 심사를 거쳐 다음달 희망퇴직자 인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시간외 근로 운영기준'을



대우조선해양 거제 목포조선소.

만들어 사무직은 시간외근로(O/T) 시간을 1인당 10시간, 생산직은 33.5시간으로 각각 줄이려고 노력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적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선업은 2~3년 전 수주가 매출로 이어지는데 대우조선해양의 2016년 수주량은 15억5000만달러, 2017년은 30억달러에 그쳤다. 2018년에 들어 68억달러로 회복했고, 지난해는 61억1000만달러를 수주했다. 결국 과거 수주 물량 감소에 따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해양·조선부문을 아울러 전 직원 대상으로 상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회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구계획안의 일환으로希

망퇴직을 시행한 후 상시 체제로 전환해 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312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스위스 선사인 트랜스오션으로부터 수주한 1조6200억원 규모의 드릴십 2척에 대한 계약 해지 관련 비용이 반영되면서 지난해 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현대중공업은 현재까지 희망퇴직 계획은 없지만 다양한 전략 사업 구축을 위해 인력 효율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

조선사들이 수주 물량 확대에도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것은 2000년대 호황기와 비교하면 수주 물량이나 수익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양성운 기자 ysw@

구직자·직장인 절반 "설연휴 고향 안간다"

알바콜, 성인남녀 1523명 설문조사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오지만, 구직자와 직장인 절반 이상은 귀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알바콜이 성인남녀 15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6%는 귀향 의사가 있었지만, 49.4%는 귀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향에 간다는 응답은 직장인의 51.2%, 자영업자 56.9%, 전업주부 56.9%였고, 구직자는 46.6%로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53.4%) ▲40대(52.6%) 보다 ▲20대(48.7%) ▲50대(43.8%) 순으로 귀향 의사가 적었다.

/한용수 기자 hys@